

# 리우올림픽 전복 출신 9명 출전한다

### 유도 김성민·펜싱 김지연 등 금메달리스트 후보 거론

4년 만에 열리는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제 31회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전복도 출신의 태극전사 9명이 출전한다. 출전할 선수로는 '2016 아시아사이클선수권대회' 여자 개인도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해 리우행 티켓을 확정지은 '사이클 천재' 나야름(삼양사) 선수와 최근 '2016 아시아역도선수권' 85kg급 인상 동메달을 딴 역도의 유동주(진안구청) 선수, 유도 100kg이상의 김성민(전주출신, 현 양주시청) 선수, 체조 기계체조 종목의 이상욱(전북도청) 선수, 펜싱 사브르 여자 부문 김지연(익산시청) 선수, 남자 부문의 구본길(진흥공단) 선수와 김정환(진흥공단) 선수, 배드민턴 여자복식의 신승찬(고창출신, 현 삼성전기)선수와 남자복식의 유연성(정읍출신, 현 수원시청) 선수가 출전한다.

메달 소식이 유력한 선수는 유도 100kg 이상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유도의 김성민 선수와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펜싱의 김지연, 구본길, 김정환 선수 그리고 배드민

턴 스타 이용대와 함께 남자복식에 출전하는 유연성 선수 등이 금메달리스트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여자 사이클의 대명사로 불리는 나야름 선수나 국내무대를 2년 연속 재패하며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계체조 이상욱 선수도 메달 획득에 대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역도의 유동주선수와 배드민턴의 신승찬 선수는 각각 33년, 94년생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경쟁한 선배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올림픽 티켓을 따낸 것처럼 올림픽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전복도 소속으로 출전하는 선수의 숫자는 적지만 출전하는 선수 모두 메달 획득이 가능한 선수들로 평가받고 있어 우리 대표팀에 큰 힘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회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금메달 최소 10개 획득, 최종순위 10위권 진입을 최종목표로 설정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27종목의 20여명의 선수단이 출



리우올림픽은 8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개최된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한민국 공식 단복

정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출범 이후 최초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개최되는 이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8월 5일부터 21일까지 17일간 206개국 1만 2,000여명의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 유로2016 F조 1차전 포르투갈 약체 아이슬란드와 1-1 무승부

### 44년 만에 본선 진출 헝가리, 오스트리아 2-0 격파 돌풍 예고

사상 첫 유로 우승을 노리는 포르투갈이 첫 경기부터 뼈저렸다. 약체로 평가되는 아이슬란드를 맞아 승점 1점을 얻는데 그쳤다.

포르투갈은 15일 오후 4시(한국시간) 프랑스 생테티엔에서 열린 유로2016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아이슬란드와 1-1로 비겼다.

포르투갈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으나, 공격의 날카로움이 부족했다. 포르투갈은 수많은 득점 찬스에도 1골을 얻는데 그쳤기에 승수를 쌓지 못했다.

F조 1위 자리는 헝가리(1승에 내렸다. 간판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는 통산 127번째 A매치에 출전해 루이스 피구(은퇴)가 가진 A매치 최다 출전 기록과 타이틀을 이뤘다.

그러나 무승부로 빛이 바랬다. 득점에도 실패했다. 전반 25분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헝가리 골문을 뚫은 것이 두고두고 아쉬웠다.

아이슬란드는 강호 포르투갈을 상대로한 유로 데뷔전에서 승점 1점을 따내 저력을 과시했다.

이날 포르투갈은 호날두와 루이스 나니(페네르바체)를 부름으로 배치해 아이슬란드의 골문을 노렸다.

포르투갈은 아이슬란드의 두터운 수비를

깨기위해 좌우 측면을 적극 활용했다. 전반 21분 호날두의 크로스를 나니가 정확히 머리에 맞혔으나 골키퍼 선방에 걸렸다.

거듭된 포르투갈의 공격에 견고했던 아이슬란드의 수비진도 점차 균열이 발생했다. 결국 포르투갈은 전반 31분 루이스 나니의 선제골로 균형을 깼다.

나니는 안드레 고메스(발렌시아)의 땅볼 크로스를 방향만 살짝 비워 아이슬란드의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잔뜩 움츠려있던 아이슬란드도 후반 5분 역습 한방으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비르키르 비야르나손(바젤)이 오른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깔끔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동점이 되자 급변한 것은 포르투갈이었다. 후반 31분 햄스트링 부상을 안고있는 히카르도 페雷斯카(베식타스)까지 투입해 골 사냥에 열을 올렸다.

후반 40분 나니의 크로스가 정확히 호날두의 머리에 연결됐지만 슈팅은 골키퍼 정면을 향했다. 종료 직전 호날두가 날린 회심의 프리킥도 수비벽에 걸려 골문을 벗어났다.

44년 만에 유로 본선 무대를 밟은 헝가리는 오스트리아를 2-0으로 꺾고 돌풍을 예고했다.



포르투갈은 15일 오후 4시(한국시간) 프랑스 생테티엔에서 열린 유로2016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아이슬란드와 1-1로 비겼다.

헝가리 골키퍼 가보르 키랄리(1800 분)는 최고령 유로출전 기록을 세웠다. 40세75일로 독일의 로타어 마테우스(은퇴)가 지난 2000년 대회에서 수립한 39세 91일 기록을 뛰어넘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위에 빛나는 오스트리아는 이번의 희생양이 됐다. 후반 21분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한 알렉산더 드라고비치(디나모 키예프)의 빈자리가 컸다.

오스트리아가 주도하던 경기는 후반 17분 헝가리 아담 칠라이(하노버96)의 득점으로 뒤집혔다.

헝가리는 후반 42분 출장 슈타버(루른베르크)가 쇠기포를 더해 승리를 완성했다.

### 강정호, 시즌 9호 홈런...팀 5연패 탈출 선봉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시즌 9호 홈런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강정호는 1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시티필드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MLB) 뉴욕 메츠 원정경기에서 5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투런 홈런 포함 3타수 2안타 1볼넷 2타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종전 0.283에서 0.294(102타수 30안타)로 끌어올렸다. 타점은 25개가 됐고 OPS(출루율+장타율)는 0.988가 됐다. 강정호는 6회초 2사 1루 상황, 자신의 세 번째 타석에서 상대 선발투수 제이콥 디그롬의 2구 94마일(약 151km) 포심을 때려내며 좌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2점 홈런을 쏘아올렸다. 시즌 9호 홈런이다.

지난 5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 홈경기에서 이후 8경기 만에 터진 홈런이다.

앞서 강정호는 1회 첫 타석에는 볼넷으로 출루했고, 4회 두번째 타석에선 디그롬의 90마일(약 145km) 슬라이더를 받아쳐 중전 안타로 출루하며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8회초 마지막 타석에서는 메츠의 두 번째 투수 짐 헨더슨을 상대로 7구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중견수 앞 땅볼로 물러났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와 스티븐 마르테의 투런포를 앞세워 4-0으로 승리하며 5연패에서 탈출했다. 시즌 성적은 33승31패로 내셔널리그 3위 자리를 유지했다.

### 코파 조별리그 탈락 브라질 등 감독 경질

'명원한 우승후보' 브라질을 이끌고도 조별리그 탈락에 그친 카를로스 동가 감독이 결국 감독직을 반납했다.

영국 공영 BBC는 15일(한국시간) 2016 코파페리카에서 8강 진출에 실패한 동가 브라질 감독이 경질됐다고 전했다.

브라질은 지난 13일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페루에 0-1로 패했다. 3위(승1무1패·승점 4)로 하위권 브라질은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충격이 컸다. 브라질이 조별리그에서 떨어진 것은 47개팀만 토너먼트로 올라간 1987년 대회 이후 29년 만이다.

동가 감독은 생애 두 번째로 브라질 감독직에서 물러난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브라질을 이끌었던 그는 2014년 다시 사랑받았으나 2년여 만에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한편, 동가 감독의 경질로 네이마르(FC바르셀로나)가 속한 올림픽대표팀의 사랑받도 공석이 됐다. 브라질은 대표팀 감독이 U-23 대표팀 감독을 겸임한다.

### 한국여자양궁 월드컵 단체전 세계신기록 달성

한국 여자양궁이 월드컵 단체전에서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며 올림픽 8회 연속 우승을 위한 청신호를 켜다.

최미선(광주여대), 기보배(광주광역시청), 장혜진(IH)으로 구성된 여자대표팀은 15일(한국시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현대 양궁월드컵 3차 대회 이틀째 여자 리커브 예선 라운드에서 합산 2045점을 쏘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지난해 7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기록한 2038점으로 이날 7점을 더 쏘다 종전 기록도 최미선, 기보배, 장혜진이 쓴 것이다.

세계랭킹 1위 최미선은 686점으로 세계기록과 타이틀을 이뤘다. 지난해 기보배가 세운 기록이다. 기보배는 682점으로 2위, 장혜진이 677점으로 4위에 올라 32강에 직행했다.

한국 여자양궁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7개 대회에서 연속으로 단체전 금메달을 사수했다.

오는 8월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도 여자대표팀의 최우선 목표는 단체전 금메달을 통해 8연패를 달성하는 것이다.

##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성로 1482 / 063) 320-0114